

# 지역 수험생 70%, 지역의대 졸업 후 지역서 활동 희망

### 입시학원 설문...수도권 수험생은 7%만 의대·지역 생활 원해 광주, 전남·북 수험생, 전남대 의대 선호...수도권 이탈도 여전할 듯

광주, 전남·북 지역 등 비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의대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 상당수는 지역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의사 활동을 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역 필수요력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분을 비수도권에 집중배정할 정책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수도권 의대 진학 희망자 대부분은 수도권 의대를 염두에 두고 있어 중복합격에 따른 수도권 이탈도 여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로학원은 올해 7월 31일-8월 8일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문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비수도권 학생의 의대 선호도를 보면 지역 소재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선호한다는 이들이 63.4%, 수도권 의대를 선호한다는 수험생이 34.4%로 나타났다.

실제 광주·전남·북 지역 의과대학 4곳의 2025학년도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은 총정원 634명 중

64.3%인 443명에 달한다.

전남대는 정원 163명 가운데 130명(79.8%)을, 조선대는 정원 150명 중 100명(66.7%)을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선발한다. 전북대는 정원 171명 중 111명(64.9%)을, 원광대는 정원 150명 중 102명(68%)을 호남권과 전북지역에서 뽑는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생의 경우에도 지역 의대 수시모집 지원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70.5%로 많았고, 지원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29.5%였다.

하지만 졸업 후 일하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지역 학생들은 지역 의대 졸업 후 향후 의사 활동을 하길 원하는 지역으로 68.3%가 지방권을 선택했고, 28.8%는 서울권, 2.9%는 경인권을 꼽았다.

이에 비해 서울·경기권 학생들은 지역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63.8%가 서울권, 29.1%가 경인권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지방권을 선호한다는 응답률은 7.1%에 불과했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에 향후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 수험생은 응답자의 59.6%(하락 40.8%+매우 하락 18.8%),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 수험생은 35.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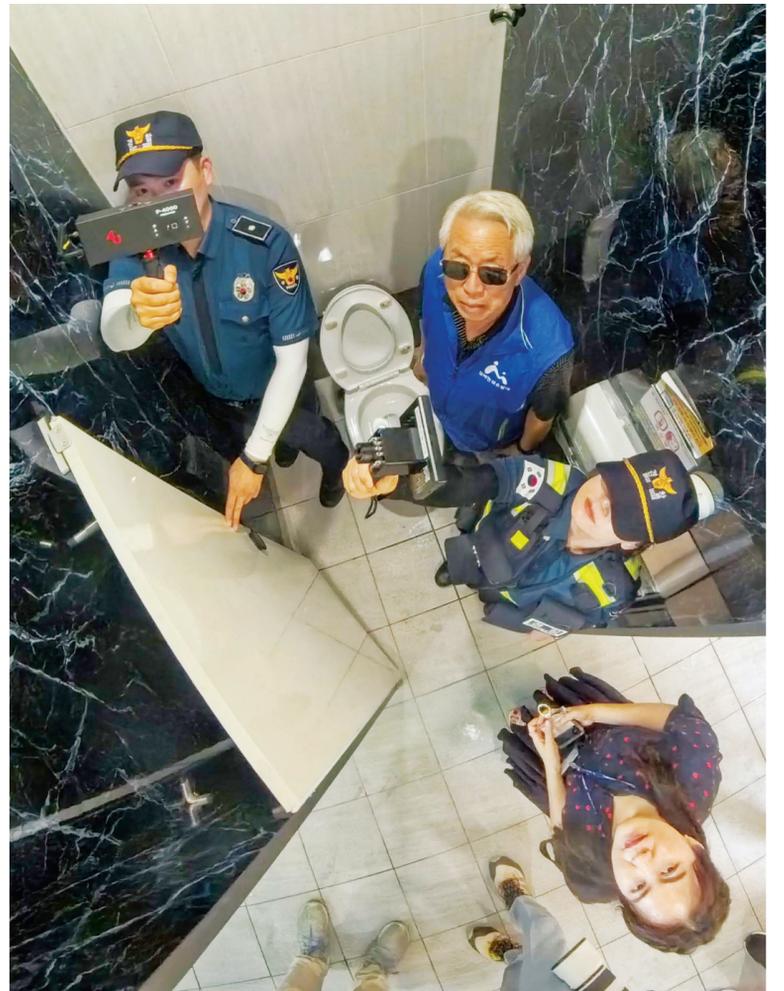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의평원)이 의대 모집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에 대해 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들 대학과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한다는 의견이 53.0%(매우 우려 16.0%+우려 37.0%), 영향력 없다는 응답이 23.5%였다.

권역별 의대 선호도는 서울·경기권 학생의 경우 서울대 44.9%, 연세대 18.2%, 성균관대 7.4%, 가톨릭대 4.6%, 고려대 4.0% 순이었다.

호남권 학생의 경우 전남대 37.0%, 전북대 18.5%, 서울대 16.7%, 연세대 16.7% 순이었다. 이들이 의대에 중복 합격하면 수도권 의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임성호 중로학원 대표는 "지방권 학생들은 지역 인재전형 선호도가 높지만 대학별로 보면 지방권 학생 대부분 수도권 의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도권·지방권 중복 합격에 따른 이동 현상이 앞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불법 촬영 꼼짝마 광주북부경찰과 북구, 효령노인복지센터 실버안심순찰대원들이 최근 광주시 북구 산동교 물놀이장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공의 225명 사직’ 전남대병원 ‘진료전담의사’ 뽑는다

### 내과 14명 등 30일까지 31명 전공의 포함했지만 전방 ‘암울’

전공의 225명의 사직서를 수리한 전남대병원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반의 모집(8월 9일자 광주일보 6면)에 나섰다.

전남대병원은 오는 30일까지 ‘진료전담의사’ 31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게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진료전담의사는 환자진료를 도맡는 의사로 수련 근무 경험자가 채용 대상이다. 수련 근무 경험자는 전공의로 근무하다 의정갈등 사태 이후 사직한 의

사도 포함된다.

모집인원은 내과 14명, 마취통증의학과 6명, 응급의학과 4명,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 각 2명, 신경과 1명 등 필수요력 분야다.

전남대병원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교수들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의 모집에 나섰다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평행선을 그어 있어 전공의들이 상급병원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경영난으로 인해 전문의 체제로 경영 전환도 어렵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이번 공채공고 대상자

들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적용하는 대신 레지던트 임금수준으로 맞추는 것도 이 때문에 분석되고 있다.

전남대병원의 한 교수는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취업하는 것도 정부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일반의사 모집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지난 9일부터 상반기 미충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68명에 대해 모집연장에 나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출신 오문교 충남청장 ‘경찰 2인자’ 치안정감 승진

광주 석산고 출신 오문교(57·석산고 10회·사진) 충남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정부는 10일 오 청장을 비롯한 2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이번 승진대상자는 오 청장과 김준영(54) 강원경찰청장 2명이다.

경찰대 57기인 오문교 승진자는 경기 의왕경찰청장, 경기남부청 교통과장, 경기남부청 정보과장 등을 거쳐 2020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작년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충남경찰청장에 보임됐다.

이날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의 승진



인사도 발표했다.

승진 대상자는 김동권 경찰청 국제협력관, 임정주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고평기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도준수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 손재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 백동흙 울산경찰청 수사부장, 모상묘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장 총 7명이다. 새로운 치안정감과 치안감들의 보직은 사도 자치경찰위원회 협의 과정을 거쳐 추후 정해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선박에 걸린 이물질 빼려다 장비없이 잠수한 50대 사망

50대 선원이 선박 정비를 위해 잠수 장비 없이 바다로 뛰어 들었다가 숨졌다.

1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신안군 임자도의 한 항구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50대 선원 A씨가 물에서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 접수 2시간 20여분 뒤 수심 10m 떨어진 인근 방파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같은 선단 소속의 다른 어선 스크류에 걸린 어망물 제거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숙박업소 업주 살해 60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

숙박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불잡힌 60대가 금품을 훔칠 의도로 범행을 것으로 드러나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60대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 B(64)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에 수차례 침입했다가 B씨와 마주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용변을 보기 위해 숙박업소에 들

어갔다 B씨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살인혐의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수사결과 출소 후 생활고 때문에 물건을 훔치다 범행한 사실이 드러나 적용 혐의가 강도살인으로 변경됐다.

살인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도살인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다.

검찰은 A씨가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